

이스라엘 국경검문소 봉쇄...가자지구 병원 연료 바닥

WHO, 구호통로 통제강화에 따른 민간인 위기 경고 140만명 물린 난민촌 라파에선 산부인과 운영 중단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장악,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인도적 위기가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일(현지시간)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이 가로막히면서 현지 병원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국경 통제로 인해 유엔이 가자지구로 연료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연료가 없으면 모든 인도주의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남부의 병원에서 시술 운영에 필요한 연료는 현재 사흘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미 라파에 있는 병원 3곳 중 하나인 알나자르 병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료가 떨어지면 가자지구 남부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는 곧 중단될 것"이라며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은 충분한 음식과 위생품, 의료 서비스 없이 열악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접근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장악했다.

이 검문소는 국제기구들이 마련한 구호품을 가자지구로 들여보내는 핵심 통로로, 이스라엘군이 이곳을 막아서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구호품 보급로도 사실상 끊긴 상태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 여명 가운데 140만명 정도가 밀집해 있다. 가자지구 남부의 의료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연료 보급이 장기간 중단되면 사망자가



영구적 휴전을 촉구하는 반전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강하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AFP=연합뉴스

속출할 것이라고 WHO는 우려했다. 이미 라파 지역에선 일부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은 라파의 주요 산부인과 병원인 알헬랄 알에미라티 병원이 더는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에는 출산실이 5개 밖에 없지 만 라파 외곽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간의 교전이 최근 격화하기



이스탄불서 앞바퀴가 안내려와 동체 착륙하는 보잉 767.

보잉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이스탄불 국제공항서 착륙장치 이상

특송업체 페덱스가 운영하는 보잉 767기종 화물기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착륙장치(랜딩기어) 이상으로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튀르키예 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페덱스 보잉 767 화물기에서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아 조종사가 관제탑에 비상착륙 허가를 요청했다.

이 화물기는 앞바퀴가 끝내 나오지 않자 활주로에 그대로 동체착륙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화물기는 뒷바퀴만으로 착륙을 시작했으며 잠시 후 기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부딪혀 슬리머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다.

압둘가디르 우랄로울루 교통부 장관은 "항공기는 동체착륙을 무사히 마쳤으며 조종사 2명도 무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후석학들 예견...지구기온 2.5도 올라 대혼란

금세기 내 가뭄·홍수·폭풍 등 극단적 날씨 통제불능 경고

세계적 기후학자들의 80%가 금세기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최소 섭씨 2.5도 이상 상승해 재앙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기후학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디언 설문조사에서 지구 온도가 2100년까지 얼마나 오를 것이라는 질문에 참여 기후학자 380명 가운데 77

가 2.5도 이상이라고 답했다.

무려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후학자도 4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온난화 제한선인 1.5도 상승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본 기후학자는 6%에 그쳤다.

상승폭 1.5도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2도 이내, 나아

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가 가속되면서 1.5도를 넘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모나코 과학 센터의 나탈리 할미는 "우리는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이하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학자의 전망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나이 든 학자보다 젊은 학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비관적이었다.

또 여성 학자의 49%, 남성 학자의 38%가 3도 이상 상승을 전망했다.

세계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

는 응답자의 거의 4분의 3이 '정치적 지지 부족'을 꼽았다. 화석연료 산업 같은 기득권 기업의 이익이 원인이라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가디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자연·사회과학계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모든 가입국 정부가 승인하는 기후변화 평가의 최고 기준"이라며 "이번 설문 결과는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다수가 수십년 안에 기후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후학자들 다수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폭염, 산불, 홍수, 폭풍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해 기근, 분쟁, 대규모 이주로 이어지는 '준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인도서 청년들 속여 러 전쟁터로 보낸 일당 체포

인도에서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속여 러시아로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도록 한 일당 4명이 당국에 체포됐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번역가와 비자발급 대행과 항공권 예약 담당, 모집책 2명 등 4명을 체포했다.

특히 번역가는 러시아에 체류하며

인도인 군인 모집 조직과 연계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아 지원한 청년들은 러시아에서 소총 등 무기 사용법을 배운 뒤 우크라이나로 보내졌다.

앞서 CBI는 인도 청년 약 50명이 이

런 방식으로 속아 넘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다가 붙잡혀 기소됐으며 CBI는 이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